

정부정책

# 대기업 · 中企 손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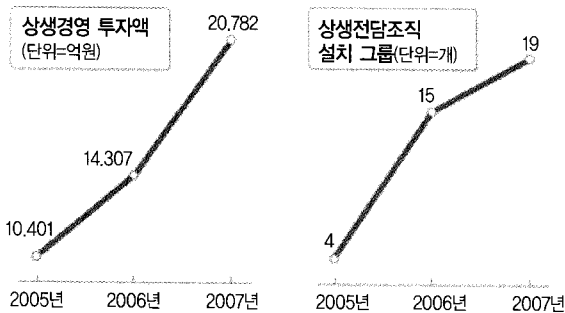
## 미래동력 키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상생협력은 경제 분야에 새로운 코드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부상했고 정부도 매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간 경쟁이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하는 추세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용어는 아직 없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The Cooperation of Large between Small Business' 정도겠지만 상생협력의 아름다운 취지를 살리기에는 왠지 부족하다.

30대그룹 상생협력



이는 천연자원이 전무한 한국이 서구와는 다른 세계 시장에서 살아가기 위한 독특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11만여 개 중소 제조기업 중 59.2%인 약 7만개 기업은 납품기업이며 이들의 대기업 의존도는 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협력회사 모임인 수탁기업협의회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협력회사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사를 보면 국내 300대 대기업 중 45개 대기업은 각각 1~2개씩 수탁기업협의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연합체로서 해당 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은 거래 대기업과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교섭력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45개 대기업과 연관된 협의회는 모두 52개며 소속 회원사는 4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회원사의 평균 직원 수는 158명, 평균 매출액은 473억 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6만3000여 명의 고용과 190조원의 매출이 대·중소기업 협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력회사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해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2004년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생협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경영자문역 진출, 대기업 구매조진부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 등 제도는 기업의 높은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 필요성을 기업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고 기술임치 등을 통해 공정거



정부정책

래를 확립하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그룹별 상생협력 지원 현황

그룹	지원내용
삼성	- 협력업체 직원 전문교육, 미래 경영자 연수 등 교육 지원 - 일본 등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교류회 - 공장 선진화, 국산화, 신기술 도입 등 각종 지원(1조원 무이자)
LG	- LG전자 현금성 결제 확대(2006년 5조원→2007년 5조 5,000억원) - 대기업 중견 인력의 협력회사 이동제도 상시 활성화 - 벤처기업 대상 블루오션 펀드 운용(100억원 규모)
SK	- 협력회사와 해외 동반진출(11개국 15개 사업) - SK상생 아카데미 개설, 협력회사 교육 지원 - SKT, 오픈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무엇보다 올해는 상생협력 주간행사가 제정돼 다양한 행사를 통한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종별 상생위원회를 통해 전 사업부문 협력도 촉진되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난 3년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에 팽배해있던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기업의 협력대금 결제 비율은 2004년 82%에서 2007년 92%로 증가했으며 하도급 위반 업체 비율도 2004년 65.8%에서 2006년 55%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발맞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5년 중소기업협력센터를 발족하면서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협력회사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기업이 늘고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규모

가 매년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영향도 크지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협력회사 부품경쟁력이 대기업의 우수한 완제품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수출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아 보이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모두가 나서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 아름다운 동행상이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제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과 매일경제신문사(회장 장대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상제도다.

서로 합심해서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 신장에 기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역들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업체 대표가 아니라 상생협력 일선에서 수고하는 대·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수상자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표창,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표창 등 6개 부문에 총 38명(19진)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동행상은 매년 지속적으로 선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보도자료 목록

NO.		Source	Date
1	지식경제부 장관, 철강업계와 글로벌 협력방안을 협의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3
2	"LED산업을 21세기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키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2
3	세계 名品 BIO를 위한 기업중심의 R&D 추진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2
4	가전사 A/S요원이 아파트 에너지낭비 치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2
5	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2
6	기술사업화의 미래,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2
7	세계 시장, 한국 바이오산업 잠재력 주목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1
8	"RFID" 확산 위한 국가표준 17종 제정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1
9	"인재(人災)는 이제 그만", 전세계 방재전문가 서울에 모였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0
10	외국기관에 R&D 문호 개방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0
11	국내 유명디자이너 한자리에, 합동 패션쇼 개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0
12	2012년, 한국산 휴대폰 6억대 생산시대를 목표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0
13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20
14	감동의 순간, 나만의 우표로 남겨볼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9
15	기업도우미센터,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9
16	지경부,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행안부로 이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9
17	'제1회 산업기술보호 결의대회', 보안을 생활 속으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9
18	'디지털 영화를 준비한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9
19	'12년 무역 1조 2천억불,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6
20	지식경제부 제1차관, 마산자유무역지역 내방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6
21	경남 테크노파크(TP) 준공식 개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2	중국의 발전은 한국에 새로운 협력과 성장의 기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3	落傷 예방, 심전도 측정, 휴대폰으로 해결!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4	수요자 맞춤형 SW전문인력 1,300명 양성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5	2008.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6	2017 '디스플레이 최강국 KOREA' 달성을 위한 비전과 발전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5
27	전력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32개국 250개사 내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4
28	"국민소득 4만달러, 자동차가 주도한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4
29	해양레저장비산업, 신수출산업으로 육성방안 논의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4
30	사랑 담아 편지 쓰면 무료로 배달해 드려요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1	오일달러 유치위한 중동 투자유치시절단 첫 파견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2	"2008 춘계 한국전자전(KES) 대구에서 개막"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3	부품소재 中企 경쟁력 제고에 2,780억 투입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4	"쌀, 밀가루, 라면, 음료수, 주류 등 주요 생필품 실제내용량 믿음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5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6	KS규격 인터넷 열람 280만회 넘어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13
37	디자인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8
38	"부품소재 상생협력사업" 1년만에 막대한 경제효과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8
39	지역특화산업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 논의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8
40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REACH 대응 공조키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8
41	조선산업 서해안시대 본격 개막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7
42	"SW사업자 신고 부담 확 줄인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7
43	지경부, 중국발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 사전대응체제 가동키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7
44	영국 TESCO사, 경기도 안성물류센터에 1억불 투자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7
45	지경부, 107개 R&D사업 49개로 통합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
46	지식경제부, 경제단체와 함께 산업환경제도 선진화에 나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
47	'08년 4월 디지털전자산업 수출입 동향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
48	산업발전심의회, 6월 8개분야 '경제제도선진화' 방안 심의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
49	올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에 778억 지원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
50	우리 토종기술, 최근 3년간 국제표준 9건 채택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08/05/06